

# 염색기업, 악성폐수 수백톤 무단방류

## 화학적산소요구량 최고 12.5배 초과 ... 색도는 기준치 37배 넘어서

서울시 특별사법경찰은 5월28일 중금속과 유해물질이 든 폐수를 무단 방류한 염색·장신구 제조기업 6곳을 적발했다.

서울시 특사경은 폐수가 발생할만한 서울지역 제조기업 98곳을 점검해 1곳은 대표를 구속하고 같은 혐의를 받고 있는 나머지 5사의 대표를 불구속 입건했다.

적발기업 가운데 한 곳은 3월부터 5월 중순까지 성동구 성수동 소재 공장에서 하루 평균 8톤 넘게 총 수백톤의 염색 폐수를 하수도에 몰래 흘려보낸 것으로 드러났다.

무단 방류된 폐수는 화학적산소요구량(COD)이 배출 허용 기준치의 최고 12.5배를 초과하고, 색도가 기준치의 37배를 넘을 정도로 오염도가 심각했다.

특히, 낡은 폐수처리장을 정상적으로 가동하지 않고 아예 하수구로 직접 폐수를 흘려보내는 등 죄질이 불량했다고 서울시 특사경은 설명했다.

함께 적발된 M사는 폐수를 공공 하수구로 방류할 수 있도록 세면시설로 위장한 비밀 배출구를 설치하기도 했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화학저널 2010/05/28>